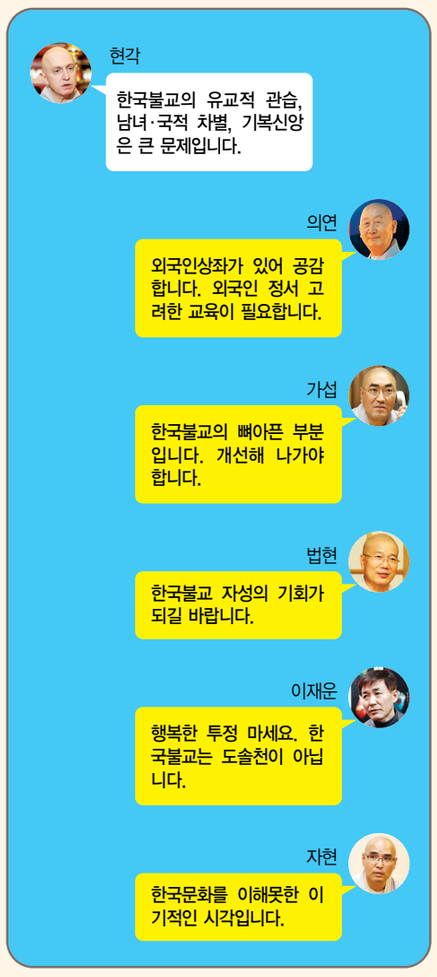
사부대중은 舌戰을 벌이고 있다



현각 스님이 던진 화두, 각계 다양한 목소리 '눈길'

한국불교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실망을 표현한 현각 스님의 소셜미디어 글로 세간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불교의 자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교계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현각 스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봤다.

의연 스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외국인 정서 고려한 행자교육 필요"

백양사 의연 스님은 8월 1일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의 발언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의연 스님은 "외국인 상좌들을 두고 있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진다"면서 "한국불교와 종단을 향한 그의 독백과 애정 없는 독설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자칫 한국불교 위상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연 스님은 7년 전 한국으로 출가해 올해 비구계를 받은 상좌 진여 스님(러시아)과 선정 스님(폴란드)에 대해 소개했다. 스님은 "외국인으로서 종단법으로 정한 새 기본교육과정과 기본선원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한 경우가 두 스님이 처음"이라며 "마침 제가 어느 절에 소임을 볼 때여서 함께 지내며 행자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초 폐쇄된 화계사 외국인행자 교육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연 스님은 "3년 전 한국에 온 알렉스(폴란드)와 루시앙(미국)도 화계사 외국인행자 교육원에 입소해 동국대 한국어센터를 다니며 행자생활을 8개월 가량 했는데, 절집에 잔재하는 군대식 문화에 질려 스님 되기 싫어졌다고 떠났다"고 전했다.

의연 스님은 "행자교육도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수행을 오래한 외국인 스님들과 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한국스님이 함께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섭 스님(마하사 주지)
"강압적 문화는 유교 아닌 일제잔재"

마하사 주지 가섭 스님은 7월 29일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이 인연을 정리하게 된 몇몇 이유들은 한국불교의 가장 아픈 부분임에 분명하다. 승가에서도 전부터 한국불교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돼 온 것이라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가섭 스님은 현각 스님이 지적한 △유교적 위계 △돈과 얽힌 기복신앙적 요소 △게으른 승려문화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피력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습합성' 또는 '융합성'이다. 조선불교 500년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찬란한 불교문화가 왜곡되고 굴절된 면이 적지 않다"면서 "기복신앙적 요소들은 현재 한국사회 민낯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불교가 자본과 정치권력에 짙게 물들어 가는 점은 위기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가섭 스님은 본지 전화통화서 "기복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 다만 이를 부처님 정법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문제"라면서 "강압적인 절집문화는 유교가 아닌 일제잔재인 군대문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자성의 재료로 삼는 건 좋은 일"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본지 통화서 "유교적 위계가 꼭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이유로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다. 이는 불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수행자 전부는 아니지만 주류가 돈에 빠져 있다는 건 아프게 다가온다. 출가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부처님 법을 위주로 살아야 하는데 세속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부처님을 민원해결사처럼 활용해 돈을 좇는 출가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현각 스님의 발언을 한국불교 자성의 재료로 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운 소설가
"현각 스님, 행복한 투정"

이재운 소설가는 7월 30일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이 25년 헛도수를 돌린 모양이다. 한국불교계가 어디 도솔천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가. 여긴 지옥이다"며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워야만 연명하는 노인들이 수두룩한 이 나라에서,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선방에 앉아 공양주가 떠주는 밥 먹고, 보살들이 사주는 가사장삼 입고, 불전함 뒤집으면 쏟아져 나오는 그 돈으로 구경 다니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으면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스승도 없었으며 제자도 없었으며 도반도 없던 부처님 생각하면 행복한 투정이란 걸 알 수도 있으련만, 더 공부하시게나"라고 덧붙였다.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외국승려의 이기적 시각"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7월 31일 페이스북에 "현각의 비판은 외국승려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서) 25년이나 살고도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하지도,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또 "외국인은 우리말이 서툴러 기도를 하지 못한다. 상담도 되지 않는다. 즉 자본을 생산해낼 수 없는 전적으로 더부살이 집단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인의 정 문화 때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한국승려가 이들을 모시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명상 · 심리 · 예술과학의 불교적 재해석

참불선원, 9월 5일부터 명사 초청 인문학강좌

지난 5월부터 다양한 명사들을 초청해 불교 인문학강좌를 실시한 서울 참불선원이 하반기에도 고품격 강좌를 이어간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9월 5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남 서울본원서 '열풍! 인문학 오케스트라'라는 대주제 아래 연속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 하반기 강좌는 붓다의 인생철학을 비롯해 한글 창제 훈민정음의 비밀, 명상체험 등 철학 · 심리학 · 문화예술 ·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개최
이미령 · 전현수 등 인문학자 대거 나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는 △인간 삶의 존엄(이미령 북칼럼니스트) △인생과 종교, 이시대의 철학에세이(前 해인사 승가대학원장 원철 스님) △혜각존자 신비와 훈민정음의 비밀(박해진 작가) △명쾌 · 통쾌 · 상쾌 선가귀감(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불교, 미래사회의 종교인가(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불교신문사장 주경 스님)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 · 위빠사나와 불교정신치료(전현수 정신과전문의) △불교와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이규미 前 한국심리학회장) △현대사회와 불교(선상신 불교방송사장) △무의식의 브레인(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붓다의 인생철학(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등으로 구성된다.

참불선원은 인문학강좌 외에도 사띠, 명상, 스트레스 심신의학을 융합해 만든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존 카밧진 박사의 MBSR강좌를 8월 1일부터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무료특강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이 맡는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번 강좌는 불교 지성문화에 인문학적 관점을 융합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일반인에게 불교 수행과 명상이 현대인의 삶을 얼마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좌와 강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불선원 홈페이지(cafe.naver.com/chambul32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1577-3696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계 광복 71주년 기념행사 줄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 봉행 등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 마련으로 분주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8월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서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종단협이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통일기원 타종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 입장문 발표, 축사 등이 이어진다.

또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8월 13일 철원 지역으로 8.15기념 민통선 순례를 떠난다. 오전 8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발해 도피안사서 통일법회를 봉행한 후 민통선 지역으로 이동, 철원평화전망대서 DMZ · 월정리역 · 철원두루미관 등을 답사한다.

이 행사엔 민추본 불교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통일바루', 대한불교청년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불교계 단체가 동참한다.

민추본 측은 "사드 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서 통일과 평화의식을 재환기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월례강좌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평화의 감수성을 고취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불교청년회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10개 단체는 8월 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 및 민간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뉴욕 타임스퀘어 나툰 석굴암 부처님

세계 교차로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석굴암 본존부처님이 나투셨다. 현재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문화재청과 LG전자가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한국의 세계유산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은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11개의 세계문화유산과 1개의 세계자연유산을 담고 있으며 약 1분 길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 제공=문화재청

세계명상센터 참불선원
WORLD MEDITATION CENTER CHAMBULSEONWON

열풍!!! 인문학 오케스트라

철학, 심리학, 문화예술, 과학을 불교와 융합해
힐링멘토, 명상체험, 마음치유까지 더욱 새로워진 -

불교인문학 대강좌

3년 연속 세계명상대전의 성공적 개최에 이은
세계명상센터 참불선원의 통합 불교인문학 강좌

대가는 다르다!!!
더욱 새롭고 품격있어진
참불선원만의 인문학 열전!



[불교방송 BBS,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합니다.]

■개 강 일 : 2016년 9월 5일 오후 2시 ■모집인원 : 선착순 300명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수 강 료 : 20만원

☎ 문의 : 1577-3696 / 010-3149-7111

NAVER 참불선원 검색

청소년, 대학생, 군인 무료 / 대학원생, 국가유공자 50% 우대
참불선원 신도, 명상입문, 세계명상대전참석자 20% 우대